
주요 QA

2020. 2. 14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Q1. '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 아닌지?

- ☐ 모든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 어려움
 -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뒤처진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
 - 실제로 '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,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
 - *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(조원) : ('15)199.8 → ('17)389.3 → ('19)416.4
 - ** 업권별 종사자수 증감('15~'19) : 자산운용 +3,905, 생명·손해보험 +83, 증권·선물 △272
- ☐ 앞으로도 국민들이 바라는 규제개혁은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되,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

Q2. 라임 사태는 '15년 규제완화와 관계가 없는 것인지?

- ☐ 금번 사모펀드 점검결과('19.11월~'20.1월)를 보면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
- ☐ 일부 사모펀드의 문제를 제도개선의 탓으로 연결·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,
 - 사모펀드 규제를 예전처럼 강화시키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
- ➡ 다만,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예상치 못한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방안*을 마련·추진해 나갈 계획
 - *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마련(2.14일) → 3월중 확정 예정
- ➡ 또한, 일부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관리·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

Q3. 금번 대책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해지는 것인지?

- ☐ 최근 발표한 사모펀드 관련 일련의 대책*에 따라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* ①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('19.12.12.)
- 공모규제 회피 차단,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강화된 투자보호(녹취·숙려제도 등) 적용,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

* ②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('20.2.14.)
-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한 보완, 정보제공 강화 등

- ☐ 다만, 투자자보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「금융소비자보호법*」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

* 주요내용 : ①설명 의무 등 판매규제 쏠금응권 원칙 적용, ②징벌적 과징금(최대 수입의 50%까지) 도입, ③소비자 청약철회권, 금융위 판매제한명령권 도입 등

Q4. 금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는 없는지?

- ☐ 금번 제도개선 방향에서는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고유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면서,

○ 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고자 함

- ☐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므로, 제도 개편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함

Q5. 금번 제도개선 방향은 언제·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?

- ☐ 동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·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경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·발표할 계획임
- 구체적 방안 확정시, 법령 개정·행정지도 등 구체적 실행계획도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

Q6. 최근 대규모 상환·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(라임펀드)와 같은 문제가 다른 펀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?

- 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라임펀드와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
- 다만,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펀드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*가 발견
- * ① 상환·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mismatch 구조, ②자사펀드 편입 등을 통한 복잡한 복층·순환 투자구조, ③TRS 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
- ➡ 해당 구조를 가진 펀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밀착 모니터링 하고, 문제 발생시 즉시 대응하여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계획
- ☐ 또한, 라임펀드에 편입된 부실자산을 다른 사모펀드에서 편입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
- 라임펀드 자산의 건전성 문제가 전체 사모펀드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음

Q7. 향후 라임이 수립·발표할 상환·환매계획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마련되며,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은?

- ☐ 라임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기준가격 조정, 펀드별 구체적인 환매계획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음
- 감독당국은 마련된 상환·환매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주검사역 등을 통해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

Q8. 판매사에 대한 검사에 즉시 착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?

- ☐ 민원·제보와 검찰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여부 및 시기를 정할 계획임

Q9.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펀드 기준가격이 조정된 이후 부터 바로 착수하게 되는 것인지?

- ☐ 자산실사, 환매절차 및 판매사 검사 등 진행상황에 맞춰 불완전 판매 관련 사실조사(3자 면담, 현장조사 등)를 신속하게 실시하고,
-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할 예정

* '20.2.7일 기준 분쟁조정 접수 건수 : 총 214건